이베로아메리카 제6권(2004년)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의 문화 · 기호학적 상징성*

박 원 복**

<Abstract>

Recent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ries to construct in the central region of the country a city specially destined to shelter most of the complex of its governmental bodies. Having this in sight, this work tries to analyze cultural influences that such project can make in the national scope, because a city of such dimension is and functions as symbolic sign for diverse aspects of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ife of its people. For that end, we choose the capital of Brazil, Brasilia as research object, because we believe that, being the capital constructed more recently of the world(1960), it will serve for our study to see various aspects that can be generated with the construction of that our city. Specially, we will concentrate our attention on the study of various aspects of ideology of the ruling class and 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of years 1950-60, that were impregnated widely in that project of national dimension. Also we try to understand how the new capital functioned for the project by which the Brazilian people wanted to find and consolidate its national identity and the Brazilian culture blossomed greatly. As it is known, with the construction of new symbolic sign,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4-043-A00055).

** 한국외국어대학교 포르투갈어과

Brasilia, the national integration of the brazilian people sped up and in its base it made possible the splendid development of its popular and national culture. Although several critics were made against the construction of Brasilia in terms of failure in solving chronical problems as social desiguality, democratic distribuition of incomes, etc, we cannot deny that the construction of Brasilia, such as a symbolic sign,was crucial factor for the consolidation of national identity of its people and, consequently, for the national integration.

Key Words: Brasilia/ new capital/ sign/ national identity/ national intergration

주제어: 브라질리아/ 신수도/ 기호/ 국민정체성/ 국민통합

Ⅰ. 들어가는 말

한 국가의 수도를 정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그 업무의 규모 면에서 뿐만 아니라 신 수도가 그 국가의 구체적·추상적인 상징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국민 생활에 미치게 될 파장을 고려할 때,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도 2004년 8월 11일, 신 행정수도 예정지로써 연기·공주가 최종 확정하였지만 헌법 재판소의 판결로 포류하다가 급기야 행정중심도시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최근에는 정치권의 여야 협상으로 행정복합도시라는 준 수도이전 프로젝트로 국가의 중심을 옮기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다소 혼란스럽고 정쟁의 도구로 까지 비춰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행정 중심도시와 같은 국가

적 사업이 지니는 그 의미와 파장이 어떠한 지에 대한 평가와 논쟁이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러한 국가적 대사가 지니는 상징성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지금으로부터 가장 근접한 시기에 천도를 한 브라질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을 경우 아직 몇가지 논란의 될 수 있는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행정중심도시 건설과 중앙부서의 이전 문제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고려되고 또 입안되고 있지만 그 내용에는 행정중심도시가, 국가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특히 사회·문화적으로 미칠 파장에 대한 연구나 대비책 나아가 그 도시의 건설을 통해 국민통합의 근간이 될 문화적 부흥을 꾀하려는 계획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데 우려를 금할 수 없다[1].

---

1)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2002년 대선 때는 신수도의 건설 자체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주를 이루다가 신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이후 각 언론들뿐만 아니라 관련학회들에서 서서히 신 수도의 향후 모습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며 논의를 지속해왔다. 그러다가 2003년 5월 16일에는 "신 행정수도 건설 쟁점·과제"라는 제하의 심포지움이 대한지리학회와 한국지역학회의 공동주최로 열렸는데 여기서는 신 행정수도의 기능과 과제, 이전 후 서울의 위상 변화, 지역균형발전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과 이슈를 토론하고 대안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어디까지나 경제, 교통 및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언론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예를 들면, 2003년 3월 14일부터 MBC가 세계 행정수도의 성공과 실패를 취재한 특별기획 '르포—세계의 新(신)수도' 역시, 수도를 이미 옮겼거나 수도 이전을 논의 중인, 브라질, 파키스탄, 독일, 네덜란드, 호주, 말레이시아, 일본 등 7개국을 찾아 현지 사정을 취재했지만, 내용은 모두 교통, 주거, 환경, 비용, 고용 등에 대한 문제만 언급하였다. 또한 한겨레, 문화일보 등 신문들도 같은 해 신 수도에 대한 특집 기사를 내보냈지만 모두가 MBC의 경우와 다를 바 없었다. 게다가 신행정수도를 종합적으로 기획 관리하고 있는 청와대의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도 2003년 5월 중 대학 연구기관, 학회, 시민단체, 지역인사 등을 망라한 100여명 안팎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그 절대다수가 법과 제도에 관련된 전문가들이었다. 아울러 학술논문의 경우도 브라질리아에 대한 저서를 찾아본 결과 1967년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발간한 "도시순례

아울러 그 내용 역시 모두 도시기획과 건축 그리고 교통에 관한 것이어서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되었거나 진행중인 정책 또는 학술연구는 한결같이 국민통합을 주도할 문화정책을 배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행정중심도시라는 역사적 대 공사를 앞두고 하나같이 정치, 경제, 사회, 국방, 교통, 환경 등에 대한 논의만이 되어 왔을 뿐 국가적 차원에서 본 국민 문화의 발전과 응집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국가의 행정 중심을 새로 건설하여 이전하는 것이, 여러 동기가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정부나 학계에서 내세우듯이, 국민 통합과 더불어 지역적·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통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그 밑바탕에는 지역간, 계층간의 문화적 통합이 뒷받침 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은 외형적인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고 급기야 국민 분열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본 논고는 세계 여러 국가들 가운데 가장 최근에 신 수도를 건설하여 이전한 브라질(1960년)을 예를 들어 연구함으로써 현재 간과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행정중심도시 건설에 따른 사회·문화적 파장연구를 통해 진정한 국민통합에 필수 불가결한 문화정책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재고하는 기회로 삼고자한다.

---

(13)/외국편: 브라질리아의 신수도개발"과 1978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발간한 번역서, "신수도의 제문제: 브라질리아, 캔베라 및 이슬라마바드의 연구" (원작자 Jime Conner)가 전부였다.

Ⅱ. 본 론

1. 브라질리아 건설의 이데올로기적·기호학적 의미

브라질리아[2] 건설은, 초기에 당대의 민족주의 정권 이념 및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문제 등과 맞물리면서, 종종 과거 브라질의 미래를 예견했던 성인·성자들의 예언[3]들을 실행하듯 미국의 서부개척과 같이 진행되었고 여러 학자들도 그러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곤 하였다. 하지만 본 논고에서는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 건설이 지니는 국가적 차원의 문화적 상징성과 그 파장을 분석하고 그 중심 테마로써 같은 시기인 1950-60년대 브라질문화운동을 집중 분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수백년의 역사를 거쳐 도시로서의 주거환경을 갖춘 상파울루나 리우데자네이루와는 달리, 브라질리아는 아직 주거 환경 및 각 사회분야가 제대로 정착된 도시로 보기에는 미흡하며 그런 관계로 현재까지도 미완의 도시로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외에, 브라질리아 도시 자체가 지니는 지역적 차원의 문화적 움직임과 파장보다는, 그 도시의 건설을 중심으로 전개된 국가적 차원의 문화운동에서 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2) 이하 본문에서 브라질리아는 연방특구(DF - Distrito Fedreal)을 의미하며 Plano Piloto는 브라질리아 건설 프로젝트 자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지역을 의마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연방특구 내의 26개 행정구역(2003-4년 사이 7개의 행정구역이 분할, 추가됨) 가운데 하나로써 하기 도표들 내에서는 Brasília로 표시됨에 유의해야 한다.

3) 1833년 이탈리아인 João Bosco 신부(Dom Bosco)는 꿈에서 남위 15°와 20°사이 위치한 호수가 있는 고원이 우유와 꿀이 흘러 부유함이 넘치는 '약속의 땅'이라는 예언을 받았다고 알려짐.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이지만, 브라질리아 건설의 주역이었던 주셀리누 쿠비체크 대통령의 희망과는 달리 오늘날 브라질리아는, 새로운 개념의 계획도시로 탄생했음에도, 현재 브라질의 여타 대도시들이 안고 있는 빈부격차, 고용불안, 환경, 교통 등 경제·사회적인 문제점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특히 연방특구의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 수도의 자체 구조상 중앙행정, 입법, 사법부가 집중되어 있어서 권위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산업적인 면에서도 제조업보다는 소비형 행정도시이고 또 도시 구획상 주거지역, 행정관청지역, 상업지역 등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역간의 거리도 도보로는 이동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지하철도 없이 일반 대중 교통 수단이나 자가용을 이용하여야 하는 일반시민들의 문화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이다. 예를 들면 당초 2000년까지 50만명 수용을 목표로 건설된 연방특구 내 쁠라누 삘로뚜(Plano Piloto) 구역(2000년 현재 45만명이며 연방특구 전체는 205만 여명임)의 경우 도로망이나 구획조정을 보면 사회계층간의 교류가 원활하지 못하게 이루어져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브라질리아 건설 입안을 맡은 루시우 꼬스따의 말과는 달리 계층간의 문화적 교류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설계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내부 소비시장의 확대와 노동시장의 왜곡 및 지역간의 편차 해소 등의 문제들도 아직 해결되기가 요원한 상태여서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계층간의 분리 현상이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때문에 애초에 추구했던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수도 브라질리아 건설은 도시 자체 차원에서보다는 문화적인 관점에서 브라

질 전체 사회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되며 이같은 현상은 신 수도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으로 사려된다.

이를 논하기에 앞서 우선 브라질리아에 대해 연구를 해온 사람들, 예를 들면 Kent, Evenson, Farret, Gosling과 같은 사람들이 밝히고 있는 브라질리아 건설을 배경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브라질리아 건설 이전까지 1763년 이래 브라질의 수도였던 리우 데 자네이루를 비롯하여, 브라질에서 포르투갈의 지배를 상징하는 모든 잔재들과 상징들을 제거하고자 했다.
2) 중·소·대 도시들이 사방으로 무질서하게 흩어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로 통일된 국가로 탈바꿈시키려는 대책이 필요했다.
3) 수도인 리우 데 자네이루가 해변가에 위치함으로써 과거 프랑스를 비롯하여 여러 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기에 국방이라는 관점에서 수도를 내륙으로 옮기자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설득력을 얻고 있었다.
4) 각 주(州)의 수도와 대도시들이 8000km가 넘는 해변가에 퍼져있음으로써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연방차원의 새롭고 능률적인 업무 패턴이 필요하게 되었다.
5) 일반국민들에게 자국에 대한 정체성을 고양하고 창출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써의 신수도 건설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6) 새로운 소비 시장을 창출하고 국가적으로 경제·사회·기술적인 혁신을 도모함으로써 낙후된 중부와 서부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성장의 중심지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

7) 서부와 북부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써 내륙지방의 신 수도 건설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박원복 2004).[4]

이러한 배경들 가운데 문화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우리는 브라질의 신 수도 건설의 이면에는 300여년간 지속되어온 식민지배자 포르투갈인들의 문화적 잔재를 일소하고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탐구하면서 이를 창달하고자하는 국가적 합의가 당대 정치인, 지식인, 일반 국민들 사이에 잠재적이라할 지라도 팽배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브라질리아 건설은 단순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1970년대 새마을 운동처럼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것만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었다. 물론 "50년을 5년에"라는 슬로건으로 개발지상주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주셀리누 쿠비체크 대통령과 권위주의적 관료주의가 싹트기 시작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 많이 고려된 프로젝트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 특히 문호창달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나름대로 상당히 효과를 거둔 것으로 사려된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브라질리아 건설을 전후하여 브라질 각 지역에서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과 계급에 속하는 각기 다른 피부의 사람들이 밀물처럼 몰려들었다. 비록 이 프로젝트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각종 난관과 계층간 이해충돌이 발생하였지만 그렇다고

4) 물론 이러한 배경하에 추진된 브라질리아 건설은, 비단 정부 또는 몇몇 집정자의 의지와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고 또 20세기 건축학상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모델이 되었지만, 사회·경제·문화적인 측면에서 오늘날 여타 브라질의 전통적인 대도시들이 안고있는 교통, 환경, 고용, 주거문제라든가 여타 발전 양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해서 브라질리아 자체가 그 당시 누렸던 '국민통합'의 상징성을 훼손시키지는 않았다. 그래서 쁠라누 삘로뚜(Plano Piloto)의 아버지인 루시우 꼬스따(Lúcio Costa)가 말했듯이 "브라질리아의 건설은 르네상스 시대식으로 개인의 또는 정치적인 어떤 소일거리에서 나온 제스처가 아니라 국가발전을 염두에 둔 거대한 집단의 공동 노력의 집대성"이었던 것이다(Costa 1968, 35). 아울러 마리우 뻬드로자(Mário Pedrosa 1981, 338)도 "브라질리아가 내포하고 있거나 상징하고 있는 혁명은 사회적 인프라의 뿌리를 창조하고 나아가 거기에 침잠함으로써 국민과 엘리트 계층의 눈에 (당시 대통령의 개인적 능력이 아닌) 브라질의 정치, 경제, 문화적 역사에 터닝포인트로써 미래를 대표할 수 있는 그들의 작품, 그들이 함께 만든 공동 집단 작품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브라질리아는 최소한도 그 건설을 전후한 1950-60년대 브라질 국민에게 국가의 장래를 상징하는 하나의 상상의 세계로써 마치 바벨탑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브라질리아는 브라질의 미래를, 그 잠재 가능성을 상징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기호로써 브라질 국민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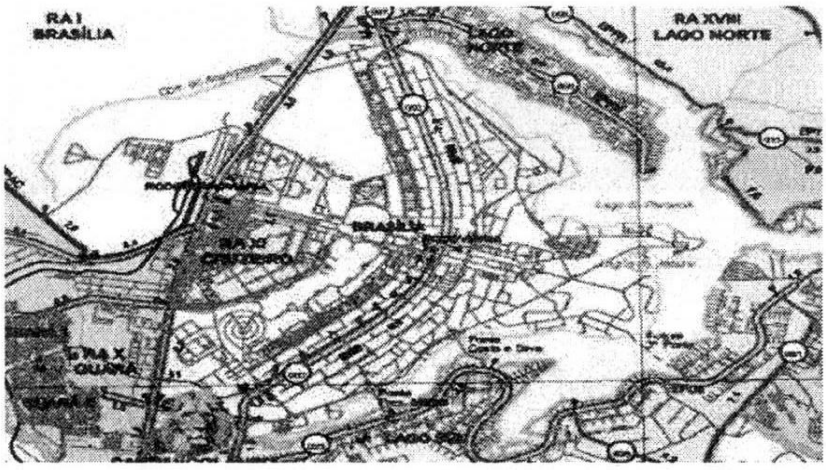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상징성과 더불어 브라질리아를 통해 당대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이 구현코자 했던 것은 바로 기존의 낙후된, 아직 식민지 잔재가 남아있는 구 브라질의 이미지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하는 그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좁게 보아 상파울루나 리우데자네이루처럼 기존의 메트로폴리탄이 지니고 있는 무질서와 침체된 분위기를 일소함과 동시에 식민지 잔재를 없애고 브라질에 새로운 질서와 번영을 알리는 서곡이자 출발점으로 브라질리아가 건설되어야 한다는 인식이었다. 그것은 신

수도 건설을 처음으로 헌법에서 명시한 1891년 공화국헌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891년 공화정 헌법을 제정하면서 90명의 제헌의원들은 바르냐겡(Varnhagen) 자작의 연구에 기초하여 제3조에 "공화국 정부는 미래 연방수도 건설을 위해 브라질 중앙고원에 14,400km^2 면적을 설정한다"고 명시하였다. 1889년 브라질은 포르투갈 왕실 후손들이 집권하던 입헌군주제를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탄생시켰는데 그 중심에 군인들이 포진하고 있었으며 이들 대다수는 당시 프랑스의 콩트(Comte)가 주창한 실증주의 사상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의 브라질 국기에 "질서와 번영(Ordem e Progresso)"이라는 글이 새겨져있는 것도 바로 그들의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이 또한 브라질리아 건설에 밑거름이 된 이데올로기적 배경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브라질리아는 식민지 잔재의 해소라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상징성을 내포한 기호로써 그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꽁트의 실증주의가 대변하는 능률과 효율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관료적 권위주의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기호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그러한 상징성과 실증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인도보다는 차도를 중시하는 등 실용과 효율성에 기본 개념을 둔 도시계획이 추진되어 전형적인 근대화 기수로서의 상징적 도시로 탄생하게된 것이다.[5] 다시 말하면 브라질리아의 도시계획은 먼저 토지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할과 배치를 통해 현대적인 사회시스템이 원활히 가동되는 효율성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5) 브라질주재 한국대사관측의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리아의 인도는 평균 600미터 간격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한다.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당대의 지배계급은 브라질리아라는 상징물 건설을 통해 국민통합과 동시에 낙후와 저개발이라는 라틴아메리카 전체의 '컴플렉스'에서 벗어나 질서 속의 번영을 꾀하면서 21세기를 대한 희망을 키우고자 했던 것이다. 그래서 브라질리아의 건설 도면을 보면, 당초 도면을 만든 루시우 꼬스따가 자신은 나비 형상을 생각하며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이륙하는 비행기 형상이라든가 활과 활의 시위 모양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오히려 더 지배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상황이다(아래 지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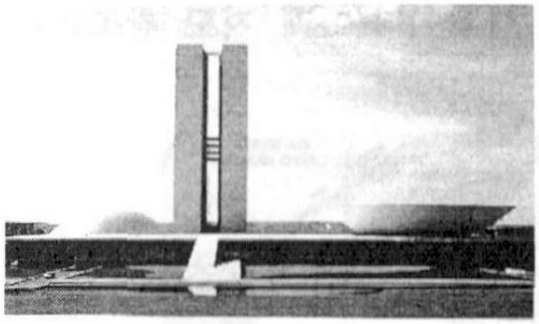


<그림 1> 브라질리아 지도로써 가운데 길게 휜 부분이 나비, 비행기 혹은 활과 활 시위 등 각종 해석을 낳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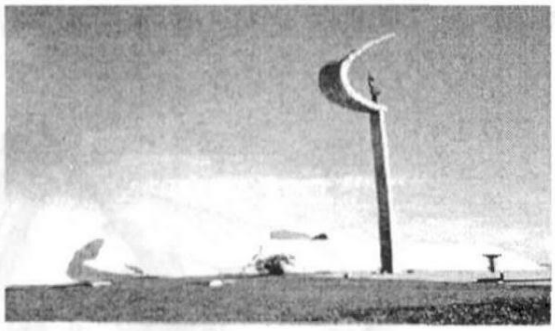
어쨌든 브라질리아는 질서와 무질서, 발전과 낙후,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분기점을 알리는 신호이자 1822년 독립이후 브라질 국민과 국토 속에 잔재하고 있던 식민지 유산을 벗어던지면서 지배자였던 유럽 백인들의 정신 문화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찾으려는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이정표로써 브라질리아는 그 자체의 프로젝트가 내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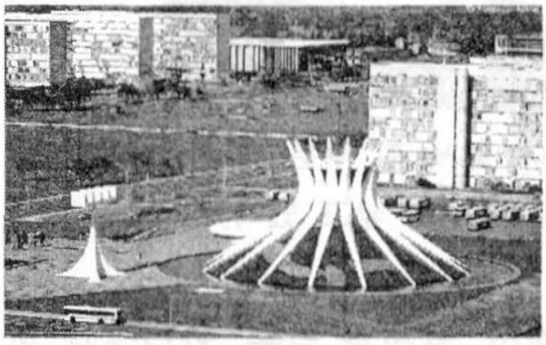
고 있는 상징성 이외에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조각들과 건축물이 필요했으며 이를 통해 그 상징성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브라질의회, 브라질리아 대성당, 주셀리누 크비체크 대통령상, 브라질국기게양대 등등 브라질리아의 시내를 돌다보면 콘크리트와 대리석 상징물들이 즐비한 인공도시라는 냄새가 물신 풍기는 것도 그 같은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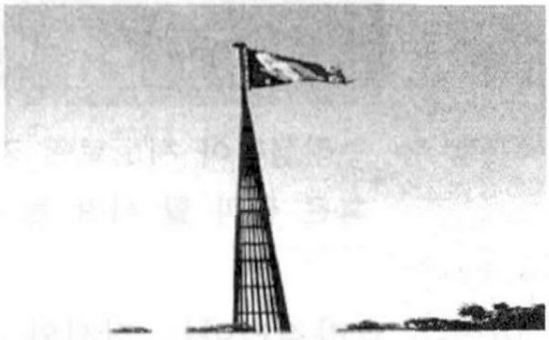
<그림 2> 브라질 의회



<그림3> 주셀리누 쿠비체크 동상



<그림 4>브라질리아 대성당



<그림 5> 브라질국기 게양대

즉, 인위적으로 생성된 기호이며 그 기호에는 브라질의 과거와 전통이 스며있지 않다는 것이다. 과거에서의 탈피와, 질서에 기초한 번영, 즉 관료 및 지배계급의 리드 하에 새 국가 창조라는 이

데올로기가 스며있으며 이런 논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확인하거나 확신할 수 없는 가능성과 그 미래였으며 그런 상상의 세계 속에 브라질리아가 잉태된 것이다.

그렇기에 브라질리아에 세워진 많은 상징물들은 아르헨티나의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상징물들과 비교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의 경우 자국 역사에서 뛰어난 발자취를 남긴 위대한 선조들의 상들을 과다할 정도로 많이 세움으로써 이민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민통합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한 반면 브라질은 이웃 국가가 겪고 있는 이민 국가라는 의식 자체가 스며들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만큼 오랜 세월을 거쳐 혼혈이 이루어진데다가 식민종주국이었던 포르투갈의 동화정책 그리고 카니발과 같은 특유의 열대문화적 융화력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브라질리아가 수도로써 브라질을 대표하는 문화적 상징성을 띠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브라질리아를 가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현대식 도시라는 데는 견해를 같이하면서도 그곳에서 브라질적인 어떤 특성이라든가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합리주의에 근거한 도시계획 속에서는 짙은 관료주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으며 나아가 그 여파가 브라질 각 도시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단지 인공으로 세워진 건축물들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의 피부색과 의복 그리고 차림새 등에서 이곳이 브라질리아구나 하는 생각을 할 뿐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외관상 브라질적인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실제로 브라질리아 건설을 입안한 루시우 고스따의 말을 빌면 프랑스의 파리에서 영감을 얻어 세워진 브라질리아를 "적절한 용어로 표현한

다면 하나의 Piccadilly Circus와 Time Square 그리고 Champs Elysées가 혼합된 그 무엇"이라는 느낌을 준다.

따라서 브라질리아 건축학적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을지 몰라도 그 도시 자체가 문화적으로 브라질을 상징한다거나 대표한다고 보기보다는 당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에 압도된 국가적 프로젝트였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인간의 생활 공간 양상을 무시한 채 전체 도시의 공간을 주거지역, 관청지역, 상업지역 등으로 확연히 구분시킴으로써 일사불란한 획일화를 강요하고 있으며 이것은 권력을 쥐고 있는 지배계급의 지배 논리를 합리화 시켜줌과 동시에 수많은 기념비적 건축물들을 세움으로써 집단의 힘을 우회적으로 강조하는 권위주의의 속내를 엿볼 수 있다.

아울러 실제 도시민의 생활면에서도 당초 계획과는 달리 아직도 상당수의 연방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경우 브라질리아에 거주하기 보다는 과거의 수도였던 리우데자네이루와, 경제의 중심지인 상파울루 등에 살고 있으며 사람보다는 차를 위한 도시 구획, 그리고 자급자족이 미흡한 경제 구조와 고용, 교육, 주거 및 인근 도시들의 베드타운화 등 한 국가의 중심으로써 각 지역과 계층 사이의 자연스런 융화를 위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는 등 자칫 브라질 내의 낯선 메트로폴리탄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다.

하지만 브라질리아의 자체가 지니고 있는 오늘날의 문제는 여타 다른 대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브라질 전체 상황과 맞물려 형성된 것인 만큼 앞서 언급한 것 만 으로 그 도시의 문화적-기호학적 상징성을 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 도시의 건설을 전후한 브라질의 시대상황을 제대로 파악해보면 그 것

의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할 수 있다.

2. 1950-60년대 문화운동과 그 파장

브라질리아 건설과 브라질 문화와의 상관관계를 논하기에 앞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신 수도 건설과 당대의 문화적 움직임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어느 국가나 정부든 신 수도를 건설함에 있어서 그 도시 계층 간의 활발한 문화적 교류 측면을 중시하지 않은 채 관련 지배 계층의 이해에 따라 거대한 문화적 상징물만 잔뜩 세운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미 언급하였지만 솔직히 브라질리아 건설도 그런 면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브라질리아 건설을 기획한 루씨우 꼬스따(Lúcio Costa) 자신도 신 수도의 건축학적 · 예술적 가치와 신 수도로써의 국가적 상징 가치를 중시하였을 뿐 실제 그곳에 살게될 시민들의 문화 생활과 그 수도가 내포하고 있는 국가적 차원의 대중 문화적 상징성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6]. 예를 들면 브라질리아를 여행한 사람들 대다수가 한 나라의 수도로서 그리고 대 역사의 상징으로써 각종 조형미를 갖춘 큰 상징적

---

6) 국내 입찰을 통해 브라질리아 건설안을 따내었던 '브라질리아의 아버지' 루씨우 꼬스따'는 1997년 10월 6일자 브라질의 일간지인 Correio Braziliense와의 인터뷰에서 Plano Piloto 구역과 동 구역의 인구수를 넘는 쎄일란지아(Ceilândia)와 따과띵가(Taguatinga) 같은 주변 인공도시들의 인구 증가가 놀라운 일이라면서 "수도로써 브라질리아는 자신만의 개성, 즉 비하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어떤 기념비적인 성격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상파울루 출신이든 여타 다른 주의 출신이든 거기(브라질리아)에 오면 지방의 어떤 도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도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도시를 의미한다. 그것이 (브라질리아 건설) 프로젝트의 컨셉에서 필수적이었다."라고 말하였다.

건축물들을 세우고 전시하는데 열을 올려 당대 지배계층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공공히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여기에 브라질 전체가 안고 있는 부의 불균형과 만연한 관료주의 국가라는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합리성과 효율성에 바탕을 둔 획일적인 현대식 도시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마치 하루아침에 그 모든 불합리한 잔재와 낙후성을 회복한 듯한 허상을 심는 격이 되었으며 나아가 수도 이전 4년 뒤에 관료적 권위주의의 탄생을 예고하는 상징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러한 여파로 브라질리아는 관료 사회와 지배계층의 지속적인 지배와 편의를 위한 상징으로 군림하게 되었으며 막상 도시 건설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한 중·하층민들은 도시 건설 후 주변의 위성 도시로 내몰리게 되는 불합리한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브라질리아 건설을 통해 국민적 통합을 이루겠다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말았으며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역시 브라질리아를 자급자족의 도시가 아닌 산업단지가 집중해있는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의 소비도시로 전락시키고 말았다[7].

이 같은 연방특구 내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문화적-기호학적 관점에서 볼 때, 당대의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그러했듯이, 브라질리아의 건설은 그 당시 예술계와 지식인들 사이에 이른바 주셀리누 쿠비체크의 포퓰리즘적 민족주의 논쟁으로 확산되어 결과적으로 대중문화의 창달을 가져오는 부수 효과를 낳았다. 브라질리아 건설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가능성과 미래지

7) 1998년 Codeplan에서 발표한 연방특구의 산업분야별 기업 분포도를 보면 소매업이 31%, 서비스업이 28%, 제조업이 9%, 기타 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적 상징성이 그러했으며 그와 더불어 1920년대부터 불기 시작한 자국의 정체성 확립 문제가 이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다시 거론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1922년 '현대 예술주간'을 기폭제로 시작된 브라질의 모더니즘운동은 그 무엇보다 브라질에 아직 남아있는 옛 식민지의 잔재를 과감히 털고 일어나 경제적으로는 자립을, 사회·문화적으로는 유럽에의 종속에서 벗어나 자주성과 정체성을 확립하자는 움직임에 불을 당긴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러한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의 의식은 1930-40년대 북동부 출신의 문인들을 중심으로 한 일명 향토주의(regionalismo)로 발전하다가 신수도 브라질리아 건설을 통해 그 출구를 확연히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정체성 탐구에의 열망이 브라질리아 건설과 더불어 불붙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대중문화와 민족문화의 대립과 논란으로 확대되었지만 이것은 결론적으로 브라질문화가 꽃을 피우는 기폭제가 되었고 그로인해 브라질 정체성 탐구 열기와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아이러닉하게도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은 바로 브라질리아 건설을 주도한 주셀리누 쿠비체크 정부가 아닌 지식인 그룹의 학술단체인 브라질 고등문제연구소 ISEB(Instituto Superior de Estudos Brasileiros)였다(Ortiz 1985, 45-67).[8] 이 단체를 중심으로 지식인과 예술인들은 대중문화 및 민족문화를 중심으로 열띤 공방을 주고 받아 다소 혼란스러운 인상을 주기는 하였어도 어쨌든 그러한 토론의 결과물

8) 브라질리아 건설을 전후하여 브라질 국내의 이데올로기와 문화현상 등 브라질 사회-문화를 연구하던 곳이지만 실질적으로 신수도 건설에 따른 문화정책 입안 등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기에 여기서 더 이상의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로써 외국 문물에의 종속 문제 및 자국의 사회·문화적 정체성 확립문제 그리고 이제 막 피기 시작한 대중예술에 대해서 그때의 예술인과 지식인들에게 다시금 문제의식을 일깨우는 효과를 낳았다.

어쨌든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브라질의 대중문화와 민족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활동을 보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 각계 각층이 너나할것 없이 모두 자국 문화에 대한 긍지와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1952년, 언어의 시각적인 면과 음성적인 면을 탐구하면서 예술계에 혁명을 몰고온 전위예술지 노이강드리스(Noigandres)의 창간,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50년대 후반과 60년대 초반을 풍미한 구체주의(Concretismo) 예술운동, 1955년 넬송 뻬레이라 두수 쌍뚜스(Nelson Pereira dos Santos)의 영화 "Rio 40° - 리우 40도"로 시작되어 글라우베르 호샤(Glauber Rocha)를 통해 절정에 이르렀던 일명 신 영화(Cinema Novo)운동, 그리고 1958년 주엉 질베르뚜(João Gilberto)와 안또니우 까를루스 조빙(Antônio Carlos Jobim)이 쉐가 지 사우다지(Chega de Saudade), 빔봉(Bim Bom) 등을 발표하면서 세계적인 음악으로 탄생한 보사노바(Bossa Nova) 음악,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 1967년 보사노바와의 단절을 선언하면서 새로운 음악을 추구한, 까에따누 벨로주(Caetano Veloso), 질베르뚜 질(Gilberto Gil), 갈 꼬스따(Gal Costa) 등이 중심이 되었던, 열대문화운동(Tropicalism)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나 관변단체가 아닌 순수 예술인들과 지식인 또는 전국대학생 연맹(UNE - União Nacional de

Estudantes) 등이 주도하는 각종 문화·예술 운동들이 브라질리아가 건설된 1960년을 전후하여 봇물 터지듯 진행되었다[9].

이것은 당시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신수도를 건설함으로써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구태에서 혁신으로 탈바꿈하자는 당대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한 이념 논쟁과 대중문화운동을 통해 자국의 정체성을 확립하자는 지식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전개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시대적 조류 속에 새로움의 상징, 가능성과 미래의 상징으로 브라질리아가 건설되었고 또 그러한 흐름의 상징 기호이자 지표로써 브라질리아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롤랑바르트가 말한 의미작용으로서의 신화로써 브라질 국민의 뇌리 속에 자리매김한 것이다(롤랑바르트 1997, 167-175).

Ⅲ. 나오는 말

우리가 20세기 마지막 건설된 인공 도시로써 정치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브라질리아를 바라볼 때, 비록 건설에 적용된 건축술을 높이 평가하여 1987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하였지만, 브라질리아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50년을 5년에"라는 슬로건 하에 개발지상주의로 나서던 주셀리누 쿠비체크 대통령 시대의 관료적 권위주의의 상징 기호로써 작용하였으며 이를 뒷

9) 물론 브라질리아 건설에 호응하면서 탄생한 문화조류도 있었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탄생한 조류도 존재하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브라질리아 건설을 전후하여 불기 시작한 사상 논쟁과 민족의 주체성 논쟁에서 촉발되었다는데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받침하듯 각종 초대형 기념비적 건축물들과, 사람보다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시스템, 그리고 다양성을 그 핵심으로 하는 브라질의 문화적 토양과는 상반되는, 획일적인 일련의 도시 구획정리를 실시한 점, 그리고 그 다양성을 무질서 내지는 혼란으로 보고 질서정연한 가운데 효율성을 우선시 한 점 등이 당대 지배계급의 권력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브라질리아는 오늘날 브라질의 문화적 특징과 제 현상들과 관련하여, 한마디로 요약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세 가지 정도는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오늘날의 브라질 문화가 300여년 넘게 지배해온 유럽 포르투갈인들의 문화가 이식되면서 싹트기 시작했는데 아이러닉하게도 독립이후의 브라질인들 역시 광대한 중앙고원의 허허벌판이라는 빈 공간에 서구의 인위적인 대규모 콘크리트 건축물들을 세우고 그것을 자신들의 정체성 탐구와 확립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된다. 이미 말하였듯이 브라질리아에 브라질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증거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아이러니에도 불구하고, 18, 19세기를 시작으로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고자했던 국민과 지식인들의 강렬한 열망이 20세기 초 모더니즘으로 구체화되었고 그 정신이 1960년 신 수도 브라질리아 건설이라는 상징적 기호의 창출로 집대성되어 오늘날의 역동적인 문화적 부흥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브라질이 애초부터 안고 있던 다인종적·다문화적 성격이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지식인들 그리고 나아가 많은 국민들의 노력에 의해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다양성이 최대 특징인 브라질 문화풍토에 메

스를 대듯이 획일화된 도시계획으로 세워진 브라질리아이지만 이 도시는 새로운 상징 기호의 창출을 통해 잠재적 역동성을 지니고 있던 브라질 문화 창달에 기폭제가 되고 나아가 문화적 다양성을 극대화하는 각종 문화적 기호 창출의 상징적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다. 즉, 브라질리아 건설은 롤랑바르트가 말한 의미작용으로서의 신화로 당대 브라질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설사 정치·경제·사회·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입안되는 바람에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고 할 지 라도 이를 간파한 지식인들과 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토론을 전개하면서 활동한 덕분에, 앞서 예를 든 세계적인 문화유산과 요소를 지닌 문화강국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참여정부는 말 그대로 이 전의 정부들보다도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정부가 신수도 건설에서 사회·문화적인 정책 배려를 소홀히 하더라도 시민단체와 지식인·예술인들이 이 같은 시대의 흐름을 재인식하고 입법에서부터 실천 작업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전통적인 풀뿌리 중심 문화가 다시 꽃필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고, 그 방법론을 토의하고 구체화함으로써 더욱 더 번창시켜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수도 건설을 통해 이룩하고자하는 진정한 의미의 국민통합과 지역간 불균형 해소의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도서

롤랑 바르트저,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 연구소 옮김(1997), 현대의 신화, 동문선.

박원복(2004), 「신수도 건설과 이전에 따른 경제-사회-문화적 파장 연구: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를 중심으로」, 중남미연구, 제23권 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중남미연구소.

Bosi, Alfredo(1992), *Cultura brasileira: temas e situações*. São Paulo: Editóra Ática.

Bruand, Yves(1981), *Arquitetura Contemporânea no Brasil. São Paulo*: Perspectiva.

Costa, Lúcio(1968), "Brasília", *Revista Arquitetura*, 제78권 35호.

Epstein, David G.(1973), *Brasília, Plan and Reality*.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Ianni, Octávio(1996), *A idéia de Brasil moderno*. São Paulo: Brasiliense.

Gouvêa, Luiz alberto de Campos(1995), *Brasília: a capital da segregação e do controle social*. São Paulo: Annablume.

Lefevre, Henri(1974), *La Production de l'Espace*. Paris: Ed. Anthropos.

Mota, Carlos Guilherme(1977), *Ideologia da Cultura Brasileira(1933-1974): pontos de partida para uma revisão histórica*. São Paulo: Editora Ática.

Ortiz, Renato(1989), *A moderna tradição brasileira: cultura brasileira*

e indústria cultural. São Paulo: Editora Brasiliense.

_____(1985), *Cultura popular e identidade nacional*. So Paulo: Editora Brasiliense.

Paviani, Aldo and Gouvêa, Luiz Alberto de Campos. (org.)(2003), *Brasília: controvérsias ambientais*. Brasília: Editora Universidade de Brasília.

Paviani, Aldo (org.)(1985), *Brasília, ideologia e realidade / Espaço urbano em questão*. São Paulo: Projeto

Pedrosa, Mário(1981), *Dos Murais de Portinari aos Espaços de Brasília*. São Paulo: Perspectiva.

Peierce, Charles Sanders(1997), *Semiótica*(원제: *The Collected Papers of Charles Sanders Peirce*). São Paulo: Perspectiva.

투고일자: 2004년 11월 4일